

학생특별위원회 내일 출범 학생회 주도의 운동한계 극복방안

9일 동맹휴업 통해 시내서 민자당 분쇄 투쟁전개키로

지난 3일 총학생회(회장: 허종훈·경제4) 주최로 5개 단과대학(인문대·법정대·사범대·해양과학대·공과대)과 동아리 연합회의 특위준비위원장을 비롯한 2백여명의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대 중앙당에서 「민자당 일당 독재을모반회」 및 도민기본권 정취를 위한 제주대학교 학생특별위원회(이하 민학특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향후학생운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해 각 과별·단과별 특위를 구성한후 오는 9일 출범식을 갖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민학특위」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공개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학생회가 대중을 정치투쟁의 대열로 인입시킬수 없는 한계속에서 그 한계를 특위

의 정치적 선도투쟁과 과학성회를 바탕으로 한 대중적 투쟁으로 극복하기 위해 특위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특위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위의 위상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으로 대중정치 투쟁체로써 도민과의 공간대를 형성하여 반민자당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 전제조건이 모아졌다.

이어 3일에는 법정대중앙당에서 「민학특위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5개 단과대학(인문대·법정대·사범대·해양과학대·공과대)과 동아리연합회의 특위준비위원장이 「민학특위」건설에 박차를 가할것을 결의했다.

4일에는 학대총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민학특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는 9일 동맹휴업을 통한 투쟁을 전개

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에는 김형준(정보공·4) 학우가, 부위원장은 김병우(행정·3) 학우와 강진(영교·3) 학우가 각각 선출됐다.

7일에는 「민자당 분쇄와 5월 9일 동맹휴업을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열고 각 과별로 동맹휴업에 동참해줄길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사태와 KBS 공권력투입이 이영일 노동자의 분신등 현안문제를 제쳐두고 현재 너무 편안하게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성토에서 공통적으로 비판하고, 5월 9일 민자당 창당대회와 더불어 「민학특위」가 출범하므로 「민학특위」를 중심으로 학생대중의 동참속에 동맹휴업을 통해 시내에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대규모 민자당 분쇄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8일내로 대부분 학과가 과별 「민학특위」를 결성하고, 자체회의를 거친후 9일 있을 「동맹휴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 89학년도 졸업생 취업률 (90년 4월 1일 현재)

단	대	졸업생수	미 취업	취업률	순수취업률	대 학 원
인 문 대		257	128	50.1%	46.3%	3
법 정 대		121	66	45.4%	36.3%	3
경 상 대		247	78	68.4%	63.5%	2
사 범 대		267	136	49.0%	37.8%	3
농 과 대		180	72	60.0%	51.1%	4
해양과학대		99	41	58.5%	46.4%	2
자연과학대		63	40	36.5%	28.5%	5
공 과 대		153	69	54.9%	49.0%	2
합 계		1,387	630	54.5%	47.0%	21

5월중 학사일정

- ▲박사학위 청구논문 본심사 = 10월~12월
- ▲수업주수 3/4선=24일
- ▲석사 및 박사학위 청구 논문 최종심사=25일~31일
- ▲제38주년 개교기념 아라 축제 = 24일~27일
- ▲제38주년 개교기념일=27일
- ▲농촌봉사활동=29일~6월 1일
- ▲교육실습=21일~6월16일

노동절기념 진군대회 개최 KBS·現重 파업투쟁지지 공권력남용 규탄

「현대중공업 폭력적인 파업과 세계노동절 기념을 위한 청년학생 진군대회」가 지난 1일 3백여명의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학생회(회장: 허종훈·경제4) 주최로 2동 중앙당에서 있었다.

제1부 「문화행사」, 제2부 「진군대회」, 「민중의례」, 「총학생회장 인사」, 「노동절 기조발제 및 현대중공업 사태 경과보고」, 「성명서」, 「출정식」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허종훈(경제·4) 총학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KBS와 현대중공업의 파업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우리 민중이 갈구하는 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반민자당 분쇄투쟁으로 총진군하자」고 역설했다.

이어 「노동절 기조발제 및 현대중공업 사태 경과보고」에서 총학생회 교육부장(문신호·농경제4)은 노동절의 유래와 의의를 비롯, 우리나라 노동절 투쟁의 역사 등 현대중공업 사태를 설명, 「민중의 실질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적극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마치고 2시경 학내행진을 하며 출정식에 나선 학우들은 「KBS탄압 현대중공업 탄압 민자당 분쇄하자」, 「국민연합 깃발 아래 민자당을 파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대입구까지 진출, 산천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경과 약 1시간정도 대치해 있다가 전경과 백발단이 밀어붙이자 교수와 파트 입구까지 후퇴한 후 30여분 동안 대치해 있었을뿐, 기상관계상 화염병투척과 최루탄 진압이 없었던 비교적 조용한 시위였다.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선거에서 제2중후(상교·4) 학우가 단독 출마 당선됐다.

그동안 두차례나 정족수미달로 무산됐던 졸업준비위원장 선출선거는 신철학과 4학년이 없는 학과를 제외한, 49개 학과중 25개 학과 4학년 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가스로 정족수를 채워 진행됐는데 선거가 끝난후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제까지 불명확하게 규정됐었던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상정립을 목표로 제반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철저한 공개를 원칙으로 사업의 단결성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연구소 開所 「통일안보연구소」이데올로기비판...통합

연구소 명칭만 다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통일안보연구소」(소장: 김현우교수·사교)와 「이데올로기비판교육연구회」(회장: 고성우교수·국문교)가 지난달 4일 「동아시아연구소」로 통합 개원했다.

최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기존 두 연구소의 기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 개원된 「동아시아연구소」는 소장이자 운영위원·연구위원으로 구성, 동아시아연구실·통일문제연구실·자료실로 조직되며

국내외의 저명학자·관련전문가 등에서 객원연구위원을 위촉해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연구자료 수집·분석, 동아시아 정세변동에 따른 통일 문제의 조사·연구, 세미나 및 심포지움 등 학술회의 개최, 연구논문 및 출판물 발간, 국내외연구기관·학회들과의 학술교류, 연구소기능수행을 위한 학술 사업」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소」 초대소장에는 고성우(부교수·국문교)교수가 임명됐다.

農·海洋科學大 학장선출

농과대학장에 권五均 교수
해양대학장에朴正植 교수



농과대학장에 권五均(농학과교수) 교수, 해양과학대학장에朴正植(어업학과교수) 교수가 각각 지난달 20일, 23일 소속단대 교수직선에 의해 선출됐다.

농과대학교수 3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실시된 농과대학장 선출 1차투표에서는 권五均교수가 18표, 康順善(농학과교수) 교수가 15표를 얻었으나, 2차투표에서는 권五均교수가 25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한편 2차 결선투표에 들어가가지전 康교수는 신상발언을 통해 후보사퇴의사를 밝힌바 있다.

또한, 해양과학대학장 선출에서朴正植교수가 해양과학대학교수 25명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편, 이번 학장선출은 농과대학 金承浩(수의학과) 前학장과 해양과학대학 鄭公孫(어업학과) 前학장의 임기가 오는 10월로 만료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신임학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복사비 장당3원 인상

지난달 30일 총학생회(회장: 허종훈·경제4)에서는 총운영위원회의를 긴급소집하여 복사자들이 제시한 복사비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5월 3일부터 복사비를 장당 17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비상학생총회에서 복사자들이 제시한 복사비인상안이 공식인건으로 채택되어 복사비인상여부는 총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바 있다.

업자에서는 인상이유를 복사용지가격인상과 부속품교체, 각종 가격인상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이번 복사비인상으로 인해 복사실속에서는 기계수리를 통한 한 복사실향상, 시험기간 복사실 운영시간 연장, 복사기전원가동 등을 내걸고 있다.

올해졸업생 순수취업률 47%

체계적인 취업대책마련 시급

지난 4월1일 장학담당실에서 발표한 '89학년도 졸업생 취업 현황을 보면 진학·유학·군입대자를 제외한 1천2백82명중 47.0%에 해당하는 6백52명이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 직종을 살펴보면, 회사 및 은행원이 3백35명으로 가장많고 공무원 56명, 교원 51명, 언론 및 자영 76명, 기타 2백38명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학과별 취업현황을 보면 진학·유학·군입대자 포함)이 가장높은 학과는 사학과 72.4%, 관광경영학과 88%, 법학과 45.9%,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 1백%, 농업경제학과 94%, 해양학과 65.5%, 전자공학과 1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 취업현황을 보면 인문대 남학생 취업률이 68% 여학생 47%, 법정대 남학생 52% 여학생 27%, 경상대 남학생 69% 여학생 66%, 사범대 남학생 56% 여학생 45%, 농과대 남학생 61% 여학생 53%, 해양과학대 남학생 62% 여학생 22%, 자연과학대 남학생 32% 여학생 43%, 공과대 남학생 58% 여학생 46%로 자연과학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단대에서 여학생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돌하트방

公權力이 空權力인가 도덕성 회복을 촉구한다

언론은 환경을 감시하고, 사회 각 부분을 연결시켜 힘을 도출해내며,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오락과 광고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언론의 다양한 기능들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사건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환경감시 기능은 가장 중요하고도 원초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7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 언론은 제도언론으로서 완전히 체제에 흡수·동화되어 집권층의 효과적인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80년대에 들어서 까지 한국언론은 민주주의적 언론질서에 필수적인 다원성, 자율성, 독립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채로 지내오면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도외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언론은 본래 사회적 필요에 의해 탄생되었다. 사회적 필요는 사회구성원의 전반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개개인의 권리실현을 지향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공익성 등은 언론행위의 정당성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다.

작금 KBS가 관제언론, 제도언론, 전천후 적용 저널리즘, 시너언론 등 부정적 수식어들로 꾸며졌던 과거를 청산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을 다하기 위해 5공 인물이며 반민론자인 사기원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KBS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12일 경향신문을 언론사에 무차별 투입, 방송사상 유례없는 물리적 작태를 보이며 이어, 지난 1일에도 공권력을 재차 투입, 물리적 진압을 꾀, 현 정부의 도덕성을 의심케했고, 힘 만능의 발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가 한 사회의 집단체 사교를 지도하고 그 시대의 가치를 선도하는 언론사에 두 번치나 언론인투쟁을 유인하는 폭력을 자행함은 언론을 제정각, 국가기강을 해치는 행위로써 자신들의 반동성을 은폐하고 정당성을 조작하려는 사대착오적 발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언론의 민주화는 민주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중용하고 일개원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 인간다운 삶은 대중의 신뢰를 형성시켜 효과적인 정부의 기초를 다져 놓음은 물론이다.

이제 정부는 무엇이든 공권력이라는 해탈할 수 없다는 힘의 논리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언론을 하사하며 절대적 권력을 남용할 때 정부는 그 권력에 의해 격렬한 국민의 저항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권력관치의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무분별한 공권력의 투입은 민심을 잃었고, 공권력이 空權力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정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이 준 힘을 가지고 국민의 일을 막으려는 권위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주권자 사이에서 상호의 연대를 취하면서 법의 집행과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유지를 위한바는 중간단체이다! 이를 벗어날 경우 그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정부는 필요악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참을 수 없는 대상이 되고 말것이다.

정부의 신뢰는 언론기관에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현 정부의 빠른 도덕성 회복을 바라며, KBS가 조속한 시일내에 사립방송 언론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南〕

한줄기의 빛속에 저렇게나 많은 색의 빛이 숨어 있었다니

축제가 있기 전, 캠퍼스는 무거운 무채색이었다. 하지만 마당극의 정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중체의 오색깃발이 하늘 가득 날릴때는 지금, 캠퍼스는 어디서든 볼 수 없었던 경쾌한 색채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 나는 스스로를 서툰바스라고 불렀다. 강의실과 도서관을 꼬박꼬박 오가는, 하지만 지금 나는 이곳 놀이마당으로 뛰쳐나와 맑은 흙뻑 밟은 사람들 틈에 끼어 어깨를 들쭉거리며 춤을 추고 있다.

탈춤을 본다. 일주 - 하는 장단을 후련하게 내지르며 나는 내뿜는 뜨겁게 흐르는 또 하나의 혼을 발견한다. 생생파티에서 얼굴이 붉어진 예쁜 파티너와 풍선을 터트리며 전에 없던 상큼한 환희도 맛본다.

난장판에 뛰어들어 어깨동무하고 그대그대 노래부르다가 결국엔 막걸리 한잔으로 갈증을 식히는 잔디밭에서 나는 문득 내속에 이렇게도 많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놀란다. 마치 프리즘을 보면서 외줄기 빛속에 오색의 빛이 숨겨져 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처럼.

●포항제철은 다음세대의 행복과 다음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社説

지금은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일상화되어버린 일이다. 최근 부패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는 종전과 달리 범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런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근원 중의 하나는 현재의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식을 줄 모르는 부동산 투기의 열병과 물가의 폭등, 불안하기만 한 증권시장의 움직임과 주력업, 그리고 음추려든 실비투자와 낙후한 산업기술개발 등이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더하여 갈수록 강화되는 시장경쟁의 압력과 부진한 수출 등이 우리의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정부와 여당이 이 경제난국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지만 그 어떤 정책도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또한 그런 위기의 확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책들이 대부분 임시방편적인 것이어서 이들 경제문제를 정상화시키기에 역부족일 뿐더러 그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급속히 상실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사태로 대표되는 노사분규의 문제들도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행이긴 하나 외에서 노사분규의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가의 보도인양 성급히 뽑아든 정부의 근시안적인 '강력한 대응'으로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그달침이도 사회 전체에 걸려가는 위기를 마냥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KBS 사태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분명히 드러난 상태에서 또 다른 언론사인 MBC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의 행태는 광범해지는 위기를 악화시키는 커널 도리어 조장해놓은 것에 다름 아니라는 의심마저 품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을 물고온 책임의 가장 큰 부분을 집권당인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와 행정부를 지배하면서 국민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권당이 지난 1월 이후 이른 바 올바른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망각해버린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대적 요청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3당통합은 우리의 정치과정에서 대한 당혹감은 물론이고 실망감을 국민대중에게 심어주기에 부족치 않았고 그 통합의 결과로 비대해진 자신의 몸무게에 안주해버린 그들의 자만심이 '구국과 개혁과 안정'을 위한 통합이라는 선전과는 정반대로 악법의 폐지나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등의 개혁정책은 유보한 채 파벌다툼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금이기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어 집권여당이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처한다는 것이 발등의 불이나 우선 끄고 보자는 식의 급작스런 정책마련이나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에나 의지하는 때 위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집권당은 보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틀림없는 사실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혁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濟州開發과 農業構造調整

최근 1~2년래 濟州地域 農業의 장래는 두가지의 커다란 물결에 휘말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나는 1992년부터 시작될 제2차 濟州道 綜合開發計劃에 대한 基本構想 속에 나타난 개발 方面이다. 濟州道를 休養地 1주위의 '하이웨이'型 觀光地로 개발로 濟州의 장래를 걸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財源의 대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農業部門을 構造改善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그 資源의 많은 부분을 觀光産業 發展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 하나는 農業의 開放化 問題이다. 「關稅·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준수를 위하여 매년 시달년에 年次の 農産物의 物量的 輸入制限을 철폐해야 됨에 따라 濟州地產 農産物 대부분이 값싼 해외 농산물과 생존권 싸움을 벌여야만 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체질을 강화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農業의 '構造調整'이 필요하다. 이는 主眼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농업의 두가지 파도에 대한 對策이 공평하게 「農業構造改善」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農業構造의 調整 혹은 改善이 달처럼 그리 쉬운 課題가 아닌 것임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農業構造改善은 國際競爭力 확보가 가능한 作目들을 選擇하고 耕地的 資源을 確保하여 農業의 經營規模를 확대하여 생산비를 절하시키고 특히 勞動生産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農業의 構造改善을 위해서는 農地의 制限性과 상당 多數로 이뤄진 零細小農構造에서 대부분의 農家가 他業으로 轉換되어야 하고,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상당 규모의 農地를 耕作

할 수 있도록 하는 農地의 移動性을 높여야 하며, 적절한 資本設備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 이때 轉業하는 農家は 더욱 민족스러운 業種으로 가까이 전환되도록 도와야 하며, 殘留 農家에게는 耕作地와 資本 확보 비용이 저렴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農業의 副業化와 높은 資源費用으로 生産費의 節減은 공멸될 수 있고 말 것이다. 더욱 대다수의 農家에게 一般化될 수 있는 그리고 國際競爭力가 가능한 만한 작목을 선정할 때에 찾아내고 普及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이 상당한 密度的 정부지원과 投資, 그리고 장기간의 時日을 요구하는 課題들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이미 60년대 부터 엄청난 국가재원과 노력을 투입하였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기서 農業의 構造改善事業을 추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달성해야 할 우리 農業의 課題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이 事業은 10년이 아니라 한 세대를 주준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 소기의 성과를 이룰까 말까한 일을 마치 당장에 다칠 우리 農業問題 해결의 代案인 것처럼 提示하여 戰戰兢兢하는 農民을 진정시킬 수가 없다는 말일 뿐이다.

현재 우리고장의 農業事情으로 보아 中·短期의 農業生産자가 바라는 것은 知照로운 方法을 통한 農産物輸入制限과 恒常 安穩하고 生産活動을 營爲하여 安定된 收益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適正價格이 保障되는 積極적이고도 妥當한 價格政策과 流通構造改善 施策이다.

安定속의 차분한 發展, 그것을 대다수 住民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전자공사태 일단락

한 화학과내의 전임교수 4명 전원이 경북 대학교 동양학과 출신으로 구성됨에 대해 화학과장은 그 책임을 지고 퇴진할것과 화학과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철저히 보자 나은 전자공학과를 건설한다는 취지에 3월 22일부터 시작된 電民團의 지속적인 고압적인 투쟁이, 학발·학살의 방법까지 병행하면서 수업거부 44일, 대회의실 점거 17일째인 지난 4일, 전임투가 당초 내걸었던 「李光萬교수퇴진」안을 철회하고 대신 절충안을 갖고 화교당과 합의함으로써 전자공학과 사태가 일단락 됐다.

電民團은 그동안의 투쟁성과에 대해 대자보에서 「李光萬교수를 즉각 퇴진시키지 못하고 강의실로 되돌아가는 우리는 공화함과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참을 수 없다며, 「李光萬교수퇴진」그날까지 진군 진군 총진군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지난 4일 화교당과 電民團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합의서 내용중 주요내용만 게재〉

합의서 주요내용

학과의 비민주적 요소의 철결과 보다 나은 전자공학과를 이룩하기 위해서 50여일에 걸친 지속적인 고압적인 투쟁을 마무리하면서 화교당과 다음과 같은 합의를 통하여 제주대학교의 발전에 동참한다.

가) 이 광란 교수 퇴진 문제

1) 최호산 3년동안 이 광란 교수 과목을 전권공수에서 제외한다.

2) 화교 경비로 인한 해의연수 및 교환

교수를 금지한다.

나) 교수 공채 문제

1) 앞으로 전자공학과 교수 공채 서류는 화교 차원의 요구시 전면 공개한다.

2)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수공채를 안 할 경우 과 소속 교수들이 전면 책임을 진다.

다) 실험기자재 확보권

1) 배정되어지는 실험실습비는 신중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수 학생 협의회에서 토의하여 결정한다.

단, 90년도 실험실습비는 전면 재정정할 수 있으며 91년도부터는 실험실습비 집행 계획 수립 이전에 교수 학생 협의회에서 토의한다.

2) 유사학과에 상응하는 실험실습기자재를 91년말까지 확보한다.

라) 전공교수 확보

1) 전직장 과목 담당교수를 공채하여 바로 채용한다.

단, 90년 8월말까지 채용되지 못할 경우는 시간강사로 대체한다.

2) 「반도체 재료」과목의 담당교수는 시간강사로 대체한다.

마) 강의실 및 실험실 문제

1) 전자공학과 전용 강의실을 자연대건물 원상까지 최소한 2개 확보한다.

2) 현재 화교 실험실 등으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수학과가 공대(7동)에서 이전전 전 공간을 전자공학과로 이전한다.

바) 교과 과정 개편

1) 정확한 교과과정을 1학기내에 작성

하며 현실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과 과정이 되어야 한다. 2) 불가피한 사유로 교과과정 개편을 할 때에는 다시 교수 학생 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시행된다.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책임 을지며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책임을 질 것임을 합의한다.

사) 조교문제

1) 전자공학과 조교는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임용한다.

위의 모든 사항은 전자공학과가 존재시

1990년 5월 4일
제주대학교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국장
공과대학장 전자공학과학과장
전자공학과학과장 전자공학과
민주투쟁 위원장

현장에서 질책에 앞서 격려를

4·19계승 투쟁시위 평가회를 보고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2동 중강당에서 집회를 갖고 토론까지 진군하였다. 뜻은 날채웠지만 대열에 선 학생이 4·19 계승투쟁시위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하지만 그들은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주' 타도, 노동자 해방'을 외치며 2시간이 넘도록 어느 누구도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바람에 화염병에 불이 붙지 않았고 시위준비 및 모든지이 미비했던 까닭에 전경과 대치한 지 얼마되지 않아 학교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 본판에서 행사마무리를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평가' 시간을 가졌다.

그때 축산과 2학년 학생이, '왜 이렇게 빨리 투쟁을 끝내느냐, 투쟁의식이 왜 이리 쇠퇴했는가, 언제부터 우리가 화염병에 불이 붙지 않는다고해서 투쟁을 그치고 그렸는가'하며 총학생회 운영위 및 그의 학우들을 질책했다. '제주대학교 학생들의

수준은 높음데, 총학생회수준은 왜 그대 부응하지 못하는가'하며 다시한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총학생회를 질책하였다. 나는 '수준'운운하는 얘기를 듣자 기분이 나았다.

오늘같이 집회를 가질때 '총학생회'의 노고를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것이다. 그저 당연하게 집회나 시위준비는 총학생회의 몫이라고 여겼을뿐이다.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들지않는 부분이 있으면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우선 질책하려고만 든다. 이런 자세가 그 학생이 말하던 '높은수준'이란 말인가!

어떤 대상에대한 비판을 하기애 앞서 먼저 대상에대한 정확한 인식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학교 학우들도 '총학생회'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비판의 눈에 앞서 격려의 마음으로 다가가서게 어떨런지.

특자의소리

濟大新聞은 제대인이 다함께 만드는 신문입니다. 본지기사, 혹은 학내 제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자하니 원고지 5매이내로 많은 투고 바랍니다.

이와 실질적인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민생안정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한 문제에 직면할 때 있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방관적인 입장이 아닌,

무조건적인 체념식의 한탄이 아닌 어느 정도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최대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한일경 국문·1

시사성있는 다양한 기획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길

濟大新聞 발전을 위한 提言

사적적 의미로 언론이란 ① 많이 글로써 지기의 견해나 생각을 나타내는 일 ② 지기의 생각이 타인 글로 풀이된다. 여기서 지기의 견해나 생각이라고 하면 다분히 주관적인 것만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러나 많은 언론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그 속에서 통일지향적인 학생대중으로서의 신봉이 되어 조국을 이끌어 가고자 했던 뜻이 있다면 비로 대학 신문이다.

이런 전국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지도 제대신문은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대신문의 독자로서 보다 발전된 대학신문이 되기

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편집에서 글을 쓰고 편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채택되어지는 원고들을 볼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 예로 가 장 큰 기획으로 북한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면 이 글의 편집은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통일지향적인 학생대중으로서의 신봉이 되어 조국을 이끌어 가고자 했던 뜻이 있다면 비로 대학 신문이다.

이런 전국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지도 제대신문은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대신문의 독자로서 보다 발전된 대학신문이 되기

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편집에서 글을 쓰고 편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채택되어지는 원고들을 볼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한 예로 가 장 큰 기획으로 북한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면 이 글의 편집은 북한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통일지향적인 학생대중으로서의 신봉이 되어 조국을 이끌어 가고자 했던 뜻이 있다면 비로 대학 신문이다.

이런 전국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지도 제대신문은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대신문의 독자로서 보다 발전된 대학신문이 되기

로부터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둘째, 다양한 기획을 내올 수 있어야 한다. 제대신문을 봤을 때 그 시기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건이나 정세까지 놓쳐버려 그때그때 끼워맞추기식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언론이 선진성이 있는 만큼 체계적인 기획을 내출수 있어야 한다.

셋째, 풍부한 학생정보로 분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교수일련번호의 목소리와 울바르지 못한 입장에서 신문과 학우들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보다 진실된 학우들의 소리로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이 나라를 걸머지고 길 언론으로 지위의 역할을 을 바로 수행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 주체로 설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김영희 국문·4

자기보호에 급급한

현 정권 처세술(?)

세상을 원만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만큼 그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 노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 이른바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처세술이란 단어가 약삭빠른자리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

때가 많다는게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전관용의 소설 「개배단 리」를 보더라도 세상이 바뀔 때마다 주인공은 자신의 직업이 가지는 利點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경제적인 변신가였다.

그런데 요즘 KBS사태를 보면 사기꾼의 「개배단 리」가 왜 그렇게도 비웃기지 않아야 할까. 소설 속의 「개배단 리」는 청진기 하나로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의사였다. 그는 노조의 타도 대상이 되어버린 사기꾼의 오래전부터 편대 하나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세상을 움직였다는 점이 그러하다.

80년대 이후 분할하기 시작한 사회계층의 욕구불만은 이미 컴퓨터에 입력되었다가 키보드나 누르던 프린트되어 나오는 내용들처럼 한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치, 경제계는 물론 사회각계각층은 변색동물처럼 제각기 자기보호에 급급하다. 정계에서는 하부조직에 여소야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바뀌는 국면을 바로 얼마전에 두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며칠전에는 국민의 방송을 자기들의 홍보도구화하고 눈에 가시인 노조를 누르기 위해 서사장(?)을 보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정치·경제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겠다는 노태평은 집권중반기에 와서는 이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음에도 현재의 이러한 일들은 노태평이 집권후반기에 「무능한 지도자」라는 오명을 벗기위한 의도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국가원수로서의 처세술인가?

양원철 국문교·2

1989회계년도 소비조합회계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자	금	금
역	역	역
I.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	1,303,800	1,065,290
2) 당좌예금	25,448,844	9,253,344
3) 당좌예금	40,000,000	30,000,000
4) 저축예금	1,066,640	1,135,480
5) 외상매출금	58,404,812	41,454,114
2. 재고자산		
1) 상품	29,139,893	33,508,463
2) 원재료	13,591,835	4,377,912
3) 저가품	9,330,990	
4) 재고자산계	52,062,718	37,886,375
유동자산계	120,467,530	79,340,489
II. 기타자산		
1. 영입보증금		
1) 기타자산계		5,000,000
2. 고정자산		
1) 비품	42,697,310	32,043,560
(2,840,367)	(21,856,943)	(13,659,749)
2. 기계장치 및 구축물	10,125,000	3,000,000
(3,492,750)	6,332,250	(630,500)
3. 차량운반구	5,168,140	5,168,140
(2,840,367)	3,307,610	(930,265)
4. 고정자산계	31,796,803	25,181,189
자산총계	152,264,333	109,531,678
IV. 유동부채		
1. 차입금	30,660,978	25,225,251
2. 미지급금	368,500	213,100
3. 미지급금	716,820	447,449
4. 미지급금	200,220	15,300
5. 유동부채계	31,955,518	25,907,100
V. 고정부채		
1. 퇴직급여충당금	16,959,273	7,808,814
2. 고정부채계	16,959,273	7,808,814
부채총계	48,925,791	33,715,914
VI. 자본		
1. 자본금	20,000,000	20,000,000
2. 이익잉여금	14,990,000	35,150
3. 이익잉여금	40,010,000	20,964,850
4. 이익잉여금		
5. 이익잉여금		
6. 이익잉여금		
7. 이익잉여금		
8. 이익잉여금		
9. 이익잉여금		
10. 이익잉여금		
11. 이익잉여금		
12. 이익잉여금		
13. 이익잉여금		
14. 이익잉여금		
15. 이익잉여금		
16. 이익잉여금		
17. 이익잉여금		
18. 이익잉여금		
19. 이익잉여금		
20. 이익잉여금		
21. 이익잉여금		
22. 이익잉여금		
23. 이익잉여금		
24. 이익잉여금		
25. 이익잉여금		
26. 이익잉여금		
27. 이익잉여금		
28. 이익잉여금		
29. 이익잉여금		
30. 이익잉여금		
31. 이익잉여금		
32. 이익잉여금		
33. 이익잉여금		
34. 이익잉여금		
35. 이익잉여금		
36. 이익잉여금		
37. 이익잉여금		
38. 이익잉여금		
39. 이익잉여금		
40. 이익잉여금		
41. 이익잉여금		
42. 이익잉여금		
43. 이익잉여금		
44. 이익잉여금		
45. 이익잉여금		
46. 이익잉여금		
47. 이익잉여금		
48. 이익잉여금		
49. 이익잉여금		
50. 이익잉여금		
51. 이익잉여금		
52. 이익잉여금		
53. 이익잉여금		
54. 이익잉여금		
55. 이익잉여금		
56. 이익잉여금		
57. 이익잉여금		
58. 이익잉여금		
59. 이익잉여금		
60. 이익잉여금		
61. 이익잉여금		
62. 이익잉여금		
63. 이익잉여금		
64. 이익잉여금		
65. 이익잉여금		
66. 이익잉여금		
67. 이익잉여금		
68. 이익잉여금		
69. 이익잉여금		
70. 이익잉여금		
71. 이익잉여금		
72. 이익잉여금		
73. 이익잉여금		
74. 이익잉여금		
75. 이익잉여금		
76. 이익잉여금		
77. 이익잉여금		
78. 이익잉여금		
79. 이익잉여금		
80. 이익잉여금		
81. 이익잉여금		
82. 이익잉여금		
83. 이익잉여금		
84. 이익잉여금		
85. 이익잉여금		
86. 이익잉여금		
87. 이익잉여금		
88. 이익잉여금		
89. 이익잉여금		
90. 이익잉여금		
91. 이익잉여금		
92. 이익잉여금		
93. 이익잉여금		
94. 이익잉여금		
95. 이익잉여금		
96. 이익잉여금		
97. 이익잉여금		
98. 이익잉여금		
99. 이익잉여금		
100. 이익잉여금		

위와 같이 공고함.

1990년 5월3일

제주대학교 소비조합 이사장 김 형 옥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금액	금액
I. 매출액		818,965,417	724,386,060
1. 총 매출액			
II. 매출원가			
1. 기초상품재고액	30,444,845	11,780,965	
2. 당기 매출액	636,439,641	601,492,382	
3. 기말상품재고액	42,731,728	524,152,758	575,386,977
III. 매출총이익		194,812,659	148,999,083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 급여	73,026,520	84,071,920	
2. 수당	26,275,620		
3. 임금	19,672,000		
4. 퇴직급여충당금	10,350,149	4,231,157	
5. 여비	1,016,360	415,100	
6. 소모품	8,808,520	8,474,030	
7. 감가상각비	11,835,136	7,828,020	
8. 보험료		799,450	
9. 수수료	3,743,460	2,008,900	
10. 수료	747,160	867,240	
11. 공과금		2,238,969	
12. 지급수수료		316,330	
13. 관리비	6,946,220	72,000	
14. 복리후생비	2,743,890	2,941,020	
15. 피복비	507,000	865,500	
16. 회의비	4,156,390		
17. 홍보비	3,800,000		
18. 시설장비유지비	5,965,846	4,138,200	
19. 의료보합부담금	1,206,920	800,580	
20. 국민연금부담금	974,550	639,300	
21. 다른상각		182,383,741	121,828,678
IV. 영업외이익		12,428,918	27,170,412
1. 영업외수익	4,233,782		
2. 전손	1,040,480		
3. 판매수수료	9,923,600	15,197,862	3,776,604
V. 영업외비용			
1. 제각손실	104,000	104,000	374,167
VI. 경상이익		27,522,780	30,572,849
VII. 당기순이익		27,522,780	30,572,849

기획

북한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 - 9 북한의 여성정책과 그 실제

글 심는 차례

여성인력의 전문화 남성보다 앞서 여성해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가부장적 통치제도

김 지 애

인문대 국문학과 · 4

I. 시작하는 말

“북한 여성은 해방되었는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북한 여성의 삶과 생활을 조명하는 작업들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육아, 가사에서 완전 해방」, 「특급은 노동기회-일급 철저히 보장」, 「가부장적 전제 및 성별분포 존재가 해방정책의 실효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반쪽 대한 앞의 자세치고는 너무 치졸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들에서 살피고자 하는 「북한의 여성정책과 그 실제」에 관한 고찰은 북한사회에 대한 직접적 관찰이나 1차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와 간략한 북한사회의 최근소식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체에 대한 충실한 파악에 한계가 많음을 밝혀둔다.

북한의 헌법과 기타 노동·혼인·가족 관계법 등 여성관련법들을 중심으로 남녀평등을 향한 북한의 여성정책과 실제 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글의 범위로 하며, 사회주의 여성해방이나 여성해방사상의 원리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글을 위해서 여러 북한분기를 비롯하여 여성신문과 각 대외신문, 「북한 혼인법」(崔達坤, 고대출판부, 1977년), 「북한 40년」(李相禹, 乙酉文化社, 1988년) 등을 보았으며 절대적으로 「북한여성」(이태영, 실천문화사, 1988년)의 도움을 받았다.

II. 여성관계법

1. 가족법

1946년 7월 30일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선포됐다.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로 시작된 이 법령은 9조로 되어있고 「북조선의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 시행계획」 총 29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령에 의하여 북한여성들은 국가경제 문화적, 사회정치적 생활에서의 남녀 평등권(제1조), 남성과 동일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2조), 동일임금과 사회보험 및 교육권(제3조)과 자유결혼·자유이혼의 권리를 보장(제4·5조) 받았다. 일부다처제와 인신매매, 공청과 사창 및 기생제도에서 해방(제7조)될 수 있는 법적보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재산 및 토지상속권을 가지며 이혼할 때에는 토지와 재산을 분배(제8조)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헌법을 제정하기도 전에 「남녀 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필두로,

「사회보험법」, 혼인관계법규 등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결혼과 이혼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에서의 여성의 평등을 꾀하면서 다각도로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파괴를 꾀했다.

전래의 가족을 파괴하는 또 다른 제도적인 조치로서 1947년에 「가족주의 내지 혈연·문법을 상징하는 제도인 호적을 없애고 신분등록제인 「공민증제도」를 실시했다.

이전에 1946년 3월부터 시작된 사유재의 폐지와 이에 따른 상속제의 소멸이 전통적인 가족제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사유재와 상속제의 없어지자 가정의 권위는 약화(무의미)되고 가족적 경제가 상실됨으로써 재산분배가 합속된 개념으로서의 「분가」란 관념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대를 잇는다」는 가계관념도 점차 사라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족중심의 경제적 기반과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파괴는 바로 대가족제도의 붕괴였다. 여기서 사회구조의 변질과 아울러 새로운 가족개념, 즉 사회민주적 가족개념이 발을 붙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랜 가부장제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과 봉건의 굴레 속에 길들여진 여성들에게 있어서 「...평등권에 대한 법령」 등 몇몇의 법으로 여성해방이 해결될 수가 없었다. 이 법령이 실현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여성들에 대한 낡은 관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막아놓은 것이 없는 그릇된 경향으로 요약된다.

2. 노동법

노동관계 법규를 살펴보면 「사회주의 헌법」은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전 태아 및 유치원생의 화상, 그밖의 사색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나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으로 하고 있다. 보수는 8시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받는다.

1946년 6월에 공포된 「노동법」 제7조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을 보면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1시간마다 5~10분간의 휴식을 보장하며,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은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을 제외한 모든 기업소 및 사무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산전 35일, 산후 42일간의 휴가를 받게된다. 1958년 8월, 농업이 집단화됨에 따라 이 법은 협동농장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으며 1978년 4월 채택된 「노동법」 제66조에 의해 해석된다.

여성의 정년퇴직은 55세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정년후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어린이 보육 교양법」(1976년)에



◇ 북한여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 등에 아이를 업고 탁아소로 가는 모습, 「사진은 「분단한국」에서 발췌한 것임」

는 임신한 여성에게는 그에 맞는 휴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게는 노동시간에 몇먹이는 시간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일정기간의 유급산후휴가를 더 준다고 되어있다.

한편, 「사회주의노동법」을 통해 여성들의 노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협동단체, 기업소, 국가기관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보호 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고 여성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 수 없으며 몇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에게는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도 중년여성들의 부인병을 예방·치료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함을 규정하고 산원에 대한 특별 환복을 두어 식사까지 정하는 등 모성보호가 철저함을 알 수 있다.

III. 관계법의 기본정책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실현의 첫번째로 맨 먼저 가족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이는 기존의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의한 유교문화가 권위적이고 권위적 위계질서에 강해, 이의 영향을 받은 가족제도가 결국 비생산적이며 봉건적 남성우월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어 혁명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조선가족법」에서 「여성들의 정치 경제적 압박을 제거했으며 또 강화시켰던 중세적 봉건가족관」을 타파하고 사회주의적 가족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가족을 사회주의 혁명의론의 실증적지대 생산의 최저단위로 만들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리하여 북한의 사회주의적 가족개념은 사적소유에 따른 각종 낡은 사회관습 및 전통을 근절시킴으로써 가족 상호간의 평등, 특히 남녀간의 평등을 실현시키는데 기초를 둔다고 보게된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은 그러한 여성들을 식민지적이고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게 된 것이다. 이것이 북한여성해방정책의 핵심이다.

1. 결혼관계하기 정책

북한의 결혼연령은 법적 하한선인 여자 만 17세, 남자 만 18세보다 훨씬 낮아지고 있다. 「북한이질과 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연령은 70년대 이후부터 남자의 경우 28세 이후가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의 경우 24~27세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연령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보다 정치적인 전략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즉, 70년대에 들어서서 강화되기 시작한 「가정의 혁명화」를 위한 조직생활과 노동생활 기간의 연장을 위해서였고 「녀자들이 한창 배우고 일할 나이에 집집을 가려 화살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정치생활에도 적극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집일성의 지적이 또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70년대 초부터 「산아장려」에서 「산아제한」으로 인구정책을 바꾼 점을 들 수 있다. 1971년 6월에 열린 肅清(사회주의 노동운동법) 제6차 대회에서 결혼연령을 남자 32세이상, 여자 27세이상으로 결정하게된 배경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1956년 3월 8일자 「내각 결정 제24호」는 협의이혼절차를 폐지하고 재판에 의한 이혼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혼시에 여성은 전 남편에 대해 결혼 중 공동소유에 속한 재산의 분배와 「북조선 토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기의 분으로 부여받은 토지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2. 교육·문화 정책

인민학교에서부터 고등중학교까지 11년의 의무교육을 마친후 대학에 진학할 사람과 직장에 다니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대학입시는 남녀가 똑같이 출신 성분과 당성에 있으므로 성차별은 불가능하며 특히 교육계의 여성진출이 80%에 이르고 있는 사실로 보아도 여성인력의 전문화가 오히려 남성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은 철저한 남

부동성의 풍토를 갖는다. 별화학적성으로 어려서부터 지위와 기회의 남녀균등을 주장하고 조기교육에서 여성과 가정의 사회화를 부르짖고 있을 때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는 고정관념이 고수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당국이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문화예술 공연들의 편성은 개인에게 선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파와 인민반조직을 통한 단체관람이 보편화 되어 있고 또 지정된 프로그램만을 봐야하며 영화·연극 등의 내용 또한 사상교육의 도구로서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취미나 오락의 차원이기보다는 정치학습의 선전예술차원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가정복지정책

○가족정책: 가족제도의 변천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면 제1단계(1945~1953):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봉건적 유습을 청산하는 시기, 제2단계(1954~1960):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한 시기, 제3단계(1961~ 현재): 사회적 경제활동의 강화와 사회주의적 재 인간 양성, 가정의 혁명화 강화정책 강력추진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가족정책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완성하는 단계에 따라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집단주의 체제에 알맞게 변모시키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의복정책: 엄격한 배급제이고 중앙계획에 의한 복지 및 의류의 생산량, 종류, 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아직도 단추와, 획일화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색복장정책」과 「화장장려」등 일련의 특별령령이 있었다. 그렇지만 급속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하루구조로 내려올수록 극심한 의류난을 겪고 있다. ○식생활정책: 여성노동력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 주식을 비롯해 부식물까지 아파트 및 공장 지역단위로 집단조리하여 공급하는 「집단지식」을 실시하고 있다.

○주거정책: 개인이 지을 수 있고 매매할 수 있는 개인 주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주택은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주택규도 및 배정우선순위를 직무에 따라 배정한다.

규제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집단주택이양식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거양식은 노동력의 집단적 수용과 주민 상호간의 견제·통제 등을 고려한 데 기인한다.

4. 정치활동

북한의 최고의결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20.8%의 여성위원이 재직하고, 지방 인민위원의 33.3%를 여성이 점유하고 있다.

여성이 정치지도자가 되는 요건은 열성당원, 가정환경 및 친족관계, 직장에서의 노력양종 순이며 학력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년단,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직업동맹(직맹), 여성동맹(여맹),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등 70여개의 각종 사회 단체에 주민들은 9세부터 65세까지(여자는 60세까지) 1개 이상의 각종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IV. 끝내는 말

북한사회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사회화를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여성정

- 1) 시리즈를 시작하며: 북한 사회주의의 접근
- 2) 북한 前史
- 3) 항일무장투쟁과 김일성
- 4) 북한의 정권수립과정(45년~48년)
- 5) 주체사상의 형성과 전개 과정
- 6) 실학사상이 주체사상에 미친 영향
- 7) 북한 사회주의 교육정책과 실제
- 8) 북한 문학의 미학적 기초와 그 이해
- 9) 북한 경제체제와 남북한 경제교류 가능성
- 10) 북한의 여성정책과 그 실제
- 11) 북한의 자주노선과 대외정책
- 12) 북한의 통일 전략과 전술
- 13) 남한의 통일전략
- 14) 북한사회주의의 장래

책들은 그러한 남녀평등권 정책에 정반대로 위배되고 「당성」과 「계급성」 우선주의인 현 정치현실 속에서도 자가담작적인 모순에 속한다.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실시 등 여성노동력의 보호규정 등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주가이전 및 선택의 자유가 제약되고 취업선택의 자유가 근원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그 한계의 예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모든 정치조직과 노동조직, 당조직 내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성」과 「여성다움」이 강조되는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북한여성이 당하고 있는 실제다.

경제사회적 군사적 부담, 그리고 공산주의적 모성상으로 인한 또 다른 이중 삼중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더욱이 그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정신 가운데서 가부장적 전통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사회주의적 가부장적 통치기제를 통해 새로운 이배물리기 지배구조를 강화하여 남녀평등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북한여성의 해방정책은 새로운 가부장제의 통치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북한여성의 이질화 문제와 여성해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가부장적 관습과 제도인 것이다.

대자보초점

민자당분쇄 관련 내용 주를 이뤄

지난 3월 개강후부터 5월 첫째주까지 교내에 게재된 대자보들을 크게 확대하여 나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상환에 관해서는 구속학우석방투쟁과 전자공화국 교수퇴진 투쟁에 대한 결의대자보 및 그에 따른 지지대자보가 주를 이루었고, 5월을 맞아 농촌봉사활동과 축제에 관한 내용이 대자보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4.3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및 민자당분쇄 투쟁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이석옥(화학공·2), 정홍우(정보공·4), 강명호(어업·3) 학우를 비롯, 4월17일 민자당 북제주군 제주지구 당사에 화염병을 투척하다 구속된 강동원(사회·3) 학우의 조기석방을 위한 정보공·화학공·어업·사회학과의 투쟁 결의서와 그 학우들의 투쟁 정당성 및 조기석방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지지대자보가 있었다.

총학생회에서는 「금년 이라측제는 전체학우가 참여할 수 있고, 제주지역의 전체민중과 연대할 수 있으며, 현재 각관적으로 학생운동에 요구되고 있는 정치선전, 선동을 통한 정치투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자보를 통해 내세웠고, 5월말에 있을 「농촌봉사활동」에 대비해 농활의 의의·원칙·준비체제를 간략히 재언했다. 그러면서 각과·단체, 지지구에서 농활준비위원회의 구성이 요청되어 진다고 표명했다.

둘째, 화해상환을 다룬 대자보를 보자면 민주자유당결선에 따른 각 지지구와 단대학생회의 입장표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개발문제, KBS언론탄압투쟁, 현대중공업분규와 같은 현안문제들도 중요관심사로 등장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지지구, 학에서 민주자유당의 결선은 「노태우 정권의 장기집권유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파소아함」으로 규정된 뒤 학생들은 물론 전 국민 모두 민자당 분쇄투쟁을 위해 결의를 해야한다고 대자보를 통해 언급하고 있었다.

지역조사업위원회에서는 「해저광케이블, 과연 누구를 위한 꿈의 통신망인가」라는 대자보에서 해저 광케이블의 설치는 군사전략상 정보의 신속한 보안체리와 남한내외의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을 뜻한다는 것이라고 상정하며, 이는 현재 하의위협 개발 계획상 유보된 국제자유지역의 현실화를 기함으로서 2001년 대중공무력 자유화시기를 겨냥하기 위한 개발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 물가상승과 전세값인상의 부담, 4.3, 4.19의 기적 대자보나 노동적 투쟁의 역사를 담은 대자보도 관심을 끌었던 것이었다.

앞으로 학내에 「민자당 일당독재분쇄 분쇄와 도민기권권 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건설이 진행되어짐에 따라 각 단대나 과별, 그리고 총학차원에서 특위건설에 대한 당위성 및 의의에 대한 대자보가 예상되며, 5·18 광주민주화투쟁에 관한 대자보도 조만간에 부활될 듯하다. [홍]



우리모두 함께 가자

제주인의 자존심, 濟民日報와 희망찬 미래를 향해 같이 갈 동반자를 찾습니다.

참언론구현이란 큰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이천칠백오 십삼명의 도민이 주주로 동참했습니다.

기사내용도 최고, 제작도 최고, 그리고 신문배달도 최고 일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일할 여러분을 뵈고 싶습니다.

- 제주시내 주요 지국에 배속돼 저희신문을 배달해 주실분
- 아라동등 시 외곽지역에서 수고해 주실분
- 시외 거주지 관내에서 신문보급에 수고해 주실분
- 보수는 부수, 배달거리를 참고하여 면담시 결정하겠습니다.

○ 문의처: 제 주 / 52-9511~3 본사판매국
서귀포 / 33-7111~2 서귀포지사

(주) 제 주 도 민 일 보 사

기획시리즈 민족생활문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1>

문화 대외 의존율 80% 넘어

국민의 저항의식 소비·향락 문화로 마비돼

우리 것을 찾자는 몸부림이 일기 시작한 지도 십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서는 외세의 침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생활문화의 정착과 민족생활문화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시리즈를 마련, 연재한다.

[취재이 씨]

김 호 소

민족생활문화연구소·연구원

I. 머리말

2차대전 후 일본에 입성한 맥아더장군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땅을 코카콜라와 팝송으로 다스리겠다." 그 말은 (보다 확대증폭되어) 이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전 상품개방률은 93.6%(88년통계)를 넘어섰고 있으며, 나날이 광고물에 외국 연예인들의 출연이 늘어나고,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38%에 지나지 않으며 농산물 수입 자유화율은 70%를 넘어섰고 있다. 과연 우리 민족의 자주성은 몇 점짜리일까?

우리는 흑시 민족자주와, 사회의 민주화, 민족통일을 염원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다. 코카콜라, 피자파이와 햄버거를 즐겨하는 이들에게는 저항의식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연일 터지는 대형사건들이나, 머구나 정치, 경제적 모순이 극심한 이 땅에서 언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가, 그런 것쯤은 그냥 넘어가고 큰일부터 처리하자고 대담한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사회변혁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통일문제나, 민주화문제는 휴전선 철책이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것일

까? 임금인상을 얘기하면 불순분자가 되는 이 땅의 내분개척전적 발전생존권. 압박한 월급봉투 속에, 가난한 밥상 위에, 한 뼘 속, 해마다 늘어나는 셋방살이 행렬 속에, 수입개방으로 죽어가는 농민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통일문제, 민주화문제의 과제와 맞닥뜨릴 수 있지않을까?

사회발전을 위한 모든 운동이란, 이 땅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생활, 즉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일 때, 그 의미 또한 있는 것이 아닐까.

6·10시위 항쟁,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우리 운동은—대중이 자주적 의지를 바탕으로 운동 전면으로 부상하는—절적변화의 시기에 서 있다. 따라서 각 부문의 현장에서 대중적 입장, 대중적 방법론의 관철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대중이 주체가 되는 과정으로서의 문화운동'에 대한 중요성 또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국내 독점자본과 민중간의 대립이 표면적으로도 격화되어 왔지만, 제국주의와 매관세력은 그들의 폭력과 탄압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문화적으로 포장한 개량적 술책을 구사하며 우리 생활 곳곳에 교묘히 위장침투해 왔다. 따라서 우리 싸움은 생활속에서 일상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또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체적이고, 집단적인 참여를 위해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문화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세상이 인식해야 할 때이다.

II. 생활문화 운동이란

1. 우리의 문화 현실

이 땅의 문화 현실은 가히 국제적이다. 마치 뉴욕이나 일본의 어느 도시 못지 않은 화려한 도심지 풍경, 그 그늘에서 암세포처럼 번져가는 공해, 공해병, 늘어가는 각종 외국 간판, 대량생산되는 (기술제휴한) 각종 즉석식품들, 일본잡지를 그대로 본딴

청소년들의 차림새, 직수입 되는 외국 저질성(색스) 영화, 거기에 에이즈까지.

이런 현상들은 얼핏보기에는 단편적인 것들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철저한 손익계산이 깔린 구조적 음모의 산물이다.

지난 '62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 착수된 이후 외국으로부터 시작된 '기술도입' 건수가 '86년 2월까지 무려 3천51건인데, '62년부터 '78년까지(박정희 군부독재기간) 16년 동안 들어온 것이 625건인 데 비해, 전후와 정권이 들어서면서 '86년 2월에 이르는 7년 동안 무려 2천4백26건이나 된다. 결국 전후한 정권은 박정희 정권 보다 10배 이상이나 예측을 심화시킨 것이다.

국 품속도 주로 사치품이 증가해서, 한창 탄압이 심하던 '85년, '86년에는 무려 8백 배나 수입이 늘어난 사치품이 있을 정도이다. 이것은 직접 폭력 이외에도 전후한 정권이 '탄압의 영구화'를 위해 문화통치를 위한 물량공세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국민의 저항의식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소비, 향락, 퇴폐, 사대문화의 확대재생산에 얼마나 애써왔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역사 이래 '최대의 도적질'이라는 오명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앞날까지도 담보잡힌 파렴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머우기 86년 7월 1일 이후 기술도입 없이도 '단순상표도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이제 바야흐로 우리 경제, 문화의 대외의존율이 80%를 넘어섰고 있음에— 어느 농민은 말한다. "우리는 카우보이의 의복차사이다."라고.

제6공화국은 이러한 유산을 이어받았고, 또 그 유산을 보다 확대재생산해 나갈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증폭된 음모적인 개량과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땅을 외세 이익에 최대로 복무하는 국제시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외세와 군사독재의 지배문화는 1) 커피, 햄버거, 청바지, 팝송 등의 사대주의 문화

(흔히 '파화문명'이라 위장된다.) 2) 세계 최고의 신제품, 비민주적 교육제도 등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을 경시하는 군대식 관료주의문화 3) 국풍 81, 민족경연대회, 전설의 고창, 소여를 품 탁자 등에 보이는, 형식만 계승하면 전통계승이 된다고 기만하는 박제화된 민족문화, 4) 엄청난 국가예산의 소모로 일부 극소수층에만 향유되는 오페라, 현대무용, 현대미술 등 소위 '순수고급문화'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지배문화의 본질이 '비인간적', '비민주적', '반자주적', '반통일적', '반생명적'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 시대의 민중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민족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민족의 해방 통일, 나아가 세계평화를 이뤄내는 데 주역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민중 주체의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2. 생활속의 일상투쟁으로서의 문화 운동

문화운동이란? 흔히 '문화운동'하면 노래, 연극, 소설, 영화 등 예술운동을 주로 떠올리게 된다. 문화는 사상, 예술만을 일컫는 말인가?

사건적응성에 의하면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노동의 총체적산물을 말하는 개념으로 생활양식까지도 포함해서, 크게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로 대별된다. 이 중 물질문화가 정신문화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문화로서 이 양자간에는 변증법적인 상호전이과정의 존재하면서도, 정신문화가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역으로 물질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계급사회에서, 민중의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을 정치, 경제, 문화투쟁으로 나뉘게 할 때, 경제투쟁은 물질문화를 장악하기 위해,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의 총합으로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나서는 투쟁으로 정의한다면, 문화투쟁은 정치, 경제투쟁의 반영물로서 이의 창조적 확대 재생산과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문화운동의 내용은 정치, 경제투쟁과 조응하여 끊임없이 변화발전해 갈 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정신문화의 상대적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문화운동은 대중생활과 괴리된 생경한 정치 구조를 낳는다는 관념적 이데올로기투쟁으로 국한되며, 원칙 강조의 공연, 예술중심으로, 전문 지식인 집단에 주도되게 된다. 이것은 곧 문화의 배후자, 가진자, 여유있는 자만의 전유물로 보는 하위문화의 형성하며 또 다시 대중을 소외시키게 되고 말지 않겠는가? 이것은 정신적인 것으로 봐도 해결할 수 있는 문화투쟁적 오류일 뿐 아니라, 우리 내부에 벌써 뿌리깊은 계급주의 문화 잔재일 수 있다. 기실 청바지, 코카콜라, 천연색 TV 등 수많은 생활용품들은 순수한 과학문명의 산물 등으로 위장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민중들을 이기적, 의존적으로 위축시켜 지배체제에 복무하게 만드는 도구로써 존재하고 있다. 즉, 파괴성이 없는 순수 물질 문화란 있을 수 없다.

개신간

「감방별곡」

—전병용 지음

이 책은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한 경력에 있는 한 전직교도관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저 암울했던 유신시대에 '유신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죄수들을 감시하다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마침내 그 자신이 정치범이 되어야만 했던 전직 교도관의 눈에 비친 교도소 이야기라는 매우 특이한 소재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 책은 드라마틱한 전개와 무리없는 필치로 우리 문화사에 '감옥문학'이라는 특수한 장르를 개척하는 새로운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공통체 3천8백원>

無 論 有 說 왕벚나무와 사구라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제주도



蘇寅燮

벌써 지난달로 가 버렸지만 우리 제주 대학교의 명물로 알려진 왕벚나무 가뭇길은 이 가치가 해를 더하여 갈수록 높아진다. 왕벚나무의 장점을 든다면 일시에 開花하여 온통 나무의 크기대로 공간을 장식 한다는 것과 꽃이 질때는 마치 한겨울의 활짝눈을 연상케 할 정도로 꽃잎이 휘날리기 때문에 실은 이로 하여금 춘정에 취하여 춤사위를 자연스레 들구는 장면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 중에 많은이가 아직도 왕벚나무를 오해하고 있어 귀증하게 할만한 본지면을 통하여 우리 제주인의 긍지와 자랑을 확신시키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로 사구라 라는 단어를 가짜 혹은 나쁜 뜻으로 내뱉는 수가 많은데 어쨌든 두번씩이나 우리나를 침략하여 수탈해간 倭人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들의 國樹로 알려진 왕벚나무를 그렇게 매도한것 같다. 대체로 나라꽃이란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와 같이 정한것이지 어떤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론 위에서 그 꽃이 기러지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 담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겨 가꾸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일본이 아닌 제주도 라는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지금으로 부터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식물유전, 육종계의 大家로 알려진 韓稔烈 박사 연구팀이, 제주도의 해발 500~600m 지역에서 20여 그루의 자생상태의 왕벚나무를 발견하고 그러한 유래를 학문적으로 입증 하였는데 예기된 즉 해발 600m까지 자생하는 왕벚나무와 해발 500m이상의 고지에서 자생하는 산벚나무 사이에서 자연 교잡되어 태어난 잡종 식물로서 왕벚나무를 소개하고 있다. 즉 왕벚나무는 꽃은 일찍 피는데 소량으로 피고, 산벚나무는 잎이 많이 난 후에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꽃이 핀 유량이 많지는 않음을 가지는데 왕벚나무는 두가지 식물의 장점을 만을 가지기 때문에

플러밋이 그들의 잡종 식물임을 밝힌 바 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증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보아 우리 한라산이 왕벚나무의 자생지라는 사실은 확실 하리라 할 수 있다.

사구라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面從腹背하는 사람을 뜻하여 일컬어지는데 오늘날과 같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많은 세태에는 이 단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왕벚나무라는 훌륭한 단어가 있는데도 사구라 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면 왕벚나무에게 얼마나 모욕적 인가를 察察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그 수명이 짧은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화산한 봄이」라는 말 그대로를 꼭맞아 떨어지게 하는 開花의 장면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진해로 가고있다. 그러나 신의 축복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을 우리 제주도의 왕벚나무가 어린 연고로 타지방에서 더욱 잘 가꾸어지고 名所化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주에 사는 우리 모두 반성하며 우리의 것을 되찾는 운동을 가진 제주인에게 매를 지어 물려오는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정성 들여 기른 왕벚의 장면을 선물로 준다면 보다 값지고 자랑스런지 않을까 생각된다. 머군다나 우리 제주도는 고지대까지 관통하는 제1·2의 횡단 도로를 가지고 있어 가토에 왕벚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는 고도별로 개화기가 다르기 때문에 진해와 비교할 때 오랜동안 왕벚의 위용을 감상할 수 있는 것까지 있다. 일본인들은 모든 문화나 식물조차에서도 외래의 것이라 경멸치 않고 가져다가 온갖 정성을 들여 자기들의 것으로 만든 후 더욱 더 승화시켜 오늘날 그네들이 자랑하는 정원정신을 토착시켰음은 기자의 사실이다. 이제 잠시 빌려왔던 모든 것을 되찾을 때가 온 것에 온국민이 각성하여, 주어진 것에 이직하지 붙어 버려야 하겠는데 바로 이런 時點에서 우리 제주도가 선행의 역할로 나서야겠다.

우선 왕벚나무를 확실히 찾기 위해서는 모든이가 왕벚나무에 애정하고 정성을 주어야 하며, 또 당국에서는 행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더욱 좋은品種을 만들어내고 번식하는 작업에 그리고 우리 제대 학생들은 여의 왕벚나무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주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원예학과 부교수

「수레를 미는 여성들」

—손덕수 지음

80년대 한국사회에 부상되었던여성—남성 문제들을 여성해방적 시각에서 조망해 본 이 책은 여성과 일과 노동, 그리고 양성체 방적 측면에서 남녀문제를 저자의 독특한 필치로 날카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저자는 가정과 남편을 대우하고 수레를 끌고 가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세계를 살리는 자, 문명을 생명적으로 힘있게 밀고 끌고 가는 구도자로 묘사하고 있다. <공통체 3천5백원>

「전통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안동대 신문사

이 책은 안동지방의 세시풍속과 전통문화 및 전통의례, 민속신앙에 대해 지난 82년부터 안동대신문에서 기획칼럼으로 다뤄온 기사들을 한데 모아 엮은 것이다.

안동지방의 전통문화들이 한데 묶여 엮여 집으로 우리문화의 발전에 밝히고 또한 발전의 통로로 오늘날에 이르는 문화의 주체성을 인식하며, 앞으로 전개되는 우리 민족문화의 향방을 예측할 때 전통문화는 단속한 과거의 소산이 아닌 현재를 거쳐 미래에 까지 이어지는 생생한 실체라는데 공감 을 느끼게 한다. <비매점>

「진논개비」

—고정국 지음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체험을 구도적 삶의 공간으로 미화시킨 작품으로 이루어진 고정국의 처녀시집. 1부 진논개비, 2부 들쭉대 피는 뜻은, 3부 내사람 사귀고 바다 등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 이시집에서 저자는 본도의 목가적인 해원의 아름다움을 시작 개성으로 잘 표현해 내고 있다. <도서출판서울·3천원>



○「P·C 오락실」

컴퓨터 실습을 받으려 P·C실에 들어갔던 아라주, 차마 눈뜨고 못 볼 광경에 경악을 금치못해.

컴퓨터 스크린에 당연히 나타나야 할 프로그램은 찾을 수 없고, 요란한 음악소리와 함께 나오는 외설스러운 오락 프로그램이 판을 치고 있어.

정보체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P·C실이 언제부터 성인용 오락실로 되었는지 모르겠소만, 정말 큰일이 아닐수가 없소이다.

○「또 우여곡절을 겪을 뻔. 우여곡절도 우여곡절 나뉘이지. 부반이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던 졸업 준비위원장 선거가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워 진행됐는데, 그것도 한 명 부족한 상태에서 회칙을 무시하며 진행되다가 극적으로 나타난 한 과대표의 덕때.

어찌하여 자신의 일에도 무심해야 하는지.

늦게 결성된 졸업준비위원회이긴 하지만 이 전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필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오.

○「지구는 하나.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지구의 날」 행사가 펼쳐졌는데.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급증하는 각종공해와 자연훼손 등으로부터 점차 황폐해 가는 지구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은 기록하오만 그 이전에 문제의 원인을 상기해 주었으면 해.

경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P·C 오락 실

어떤 특정한 날이 패서야 세상이 떠나갈듯 북적일 것이 아니라 평상시 지구는 하나임을 명심, 더이상의 무책임한 행동을 삼가했으면 하오.

○「정신차리소서. 본디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책을 마련하지 못한 교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교수파트.

장기집권에 입주원칙 수시변경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과거의 사례를 악용, 버 것이 사내에 집이 있는 교수들 까지 교수아파트 입주를 신청했다는 풍문이 나돌아. 꽃 아가보이 아닌게 아니라 사실임이 입증돼.

아무리 물결치·물상식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나무하는 것 같지 않소이까. 빨리 정신차리지 않으면 물결치한 교수명단이라고 공개해야 할 것 같소이다.

○「바늘하리에 실을 매서야. 아무리 급해도 바늘 하리에 실을 꿰어야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인 데.

5공이 싫어서 독립하신 재민일보측이 함락문화의 주범인 김아무개씨까지 대지주로 모셨다고.

글쎄, 바늘하리에 뭇 실이 제구실을 할까 모르겠소이다. 다만 입지를 분명히 가지고 출발하기 바리요.

○「영원불멸의 의지. 「青山은 어찌하여 萬古에 푸르며」. 世上은 어찌하여 가진자만의 것고.

청원에서는 「군부독재타도, 회사의 각성, 노조탄압 중지」를 외치며 한 노동자가 몸을 던졌는데, 노동자들의 義勇心은 가진 자도 취지 못했으니.

「우리도 그치지 마라 萬古常靑하리라」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는 소리...

「목동은 놀지않고 농우(農牛)를 보살피려 드물에 끌리고 이슬 풀자로 뜰겨 그루같이 보 심으기 제 몸을 빌리로드...」

농가원령가의 한 귀절처럼 5월이 되면, 이 땅의 곳곳에서는 우리들의 일과 삶을 가꾸어가는 소리들로 분주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바를 때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일용할 양식을 애써 가꾸는 건강한 모습들—

농촌에서, 어촌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제몫의 삶을 진솔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대지(大地)는 또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며 스스로를 일구어 줄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도 같이 편안하고 포근하게 이 땅의 삶을 감싸안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 좋은 계절에, 우리들이 대지를 굳게 밟고 설 때,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